

# 조계종 선거인단 '확정'

## 7~11일 24개 교구본사서 교구총회 통해 선출



10월 7일 열린 직할교구총회에 참석한 200여 스님들.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총회가 10월 7일 직할교구를 시작으로 11일까지 24개 교구본사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직할교구(주지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교구총회를 열고 선거인단으로 지관(총무원장) 공은 도서 학명 용하 환적 명분 가섭 혜경 명수 스님을 선출했다.

직할 교구총회에는 313개 소속 사찰 주지 중 196명이 참석했으며, 당연직 선거인단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제외한 선거인단 9명 선출에 9명이 입후보해 무투표 결의로 결정됐다.

이날 교구총회에 앞서 지관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총무원장만이 종단을 이끌고 외호하는 것이 아닌 스님들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법망구 정신으로 선거인단 선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직할교구총회 위임직행은 집행부 수석부장인 총무부장 원화 스님이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기획실장 장적 스님이 맡았다.

직할교구에 이어 각 교구본사도 교구총회를 열고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신흥사, 범주사, 마곡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해인사, 쌍계사, 고운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등 13개 본사는 7일, 용주사, 백양사는 8일, 월정사, 은해사, 불국사, 범어사, 통도사, 선운사, 봉선사는 9일, 명월사, 선암사, 관음사는 11일 교구총회를 통해 선거인단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각 교구총회에서 선출된 선거인단 신원조회를 거쳐 선거인단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다.

한편, 이날 직할교구총회를 비롯한 각 교구본사 총회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불교단체 모임' 회원들이 선거인단 선출 과정을 모니터링해 관심을 끌었다. 모니터링 결과는 선거인단 선출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 10·27법난 기리는 행사 '다채'

## 조계종·법난명예회복위, 심포지움 기념전시회 등

'10·27법난' 발생 29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화, 이하 명예회복심)의 위는 10월 9일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피해자님 초청간담회'를 시작으로 오후 1시 '기념법회'와 '10·27법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기념 학술심포지움이 진행됐다. 더불어 '언론보도를 통해 본 10·27법난의 진실'이라는 주제의 기념전시회가 27일까지 이어진다.



10월 9일 열린 '10·27법난 기념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당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신군부 세력이 합종수사분부를 내세워 특정 종교와 교단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국가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가 10·27법난이다"며 "아픈 상처이지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말씀하게 털어버리는 지리이길 바란다. 두터운 양금을 씻기 위해서는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상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에 유감을 표하며 불교계의 지금 노력이 약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회는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

립이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 불교계 숙원사업을 풀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예회복심위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인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사업'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조계종 10·27법난역사기념관 건립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지관, 이하 부지선정위원회)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역사기념관 건립부지 '조계사'로 결정했다.

부지가 조계사로 결정된 상황에서 계획에 대해 세영 스님은 "우선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 1500억 원이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활동방향은 추후의 문제"라며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 태고종 인공 스님, 지관 스님 예방 7일 만나 봉원사 소유권 분쟁 의견 나누는 듯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신임인사 차 10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이번 예방에는 태고종 신임 부원장으로 내정된 청봉 스님과 법현 스님이 함께 했다.

인공 스님은 지관 스님에게 "영산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최근 등재됐다. 지관 스님이 전에 영산재 보존문화회 등을 잘 이끌어 세계에 불교문화를 알려달라"고 하신 것은 알낱을 내다보신 법력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인사를 건넸다.

지관 스님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한다"며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신데, 태고종을 잘 이끌어 달라"고 화답했다.

이날 예방은 16일 개최예정인 '조계종·태고종 봉원사 소유권 문제'의 서울고법 조정을 앞두고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이에 앞서 태고종은 한국전통문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교



첫 회담한 지관 스님(왼쪽)과 인공 스님.

구 총무원장 회의를 열고 총무원 실·부장 인사 등 집행부 구성에 각 교구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취임식은 28일 오전 11시 신촌 봉원사 삼전불전에서 봉행된다.

노덕현 기자

# 태고종 합동독도수계산림 봉행

## 13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120명 대상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10월 13일 전남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34기 합동독도수계산림을 봉행했다.

태고종 각 사찰에서 행사교육을 이수한 120여 남녀 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수계산림은 일제 식을 시작으로 3주간 매일 새벽 3시부터 예불, 정근, 강의, 운력, 참선수

행 등 교육일정이 진행된다. 수계식은 30일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봉행되며 수계식을 마친 사미, 사미니들은 종단 교육기관인 법륜승가대학, 동방불교대학, 선암사 전통강원, 보덕사 비구니전 문강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후 태고종 정식 승려로 정진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승려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일까지 입법예고, 승려분한신고 종법 명시 골자

조계종 총무원장은 승려분한신고의 종법상 명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승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된 승려법 개정안에 따라 승려분한신고는 10년 주기로 모든 재적승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분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승적이 말소된다. 말소 이후 2년은 유예기간으로 다시 분한신고를 할 경우 말소가 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권제적 된다.

직권제적된 승려는 별도의 분한

신고 기간에 복적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복적 이후에도 제적 기간은 승탑에서 삭감된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이전 분한신고 미필로 2002년 이후 직권제적된 자와 2010년 이후 직권제적된 자의 복적 신청은 1회에 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번 승려법에는 군종교구의 군승관리도 명시했다. 군승의 경우 군종교구장이 제적원을 제출,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 차문화관 개관

## 천태종, 中 베이징에

천태종이 중국 베이징에 한국 차문화관을 개관하고 한국불교와 다도문화 알리기에 나섰다.

천태종은 10월 9일 베이징 영광사에 '베이징차문화관'을 개관했다. 한국차문화관은 100㎡ 규모의 전통 한식 기와집이다.

천태종은 이번 베이징 차문화관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어와 국악, 천연염색 등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천태종은 2007년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를 통해 베이징 영광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노덕현 기자

# 군종특별교구 43기 신임군승 모집

## 19일~11월 13일 접수... 8일 격려법회 개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43기 신임군승을 모집한다.

신임군승 신청자격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사미계 수지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예정)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스님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스님 △입관년도 연령이 만 35세를 초과하지 않는 스님이다.

신청은 소정양식의 지원서와 추천서,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가사 장삼을 수의한 명함사진 등 관련 서류를 군종교구 총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군종교구 홈페이지(www.gunindra.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 후 면접시험 일자가 개별 통지되며, 선발 평가 사항은 불교 상식과 의식집전, 설법, 교리, 가차관 등이다.

군종장교(법사) 선발시 육·해·공군 중위 또는 대위로 임명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할 군사할 주지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군종교구는 8일 국방부 호국원광사 백상홀에서 제42기 군승명서, 가사 장삼을 수의한 명함사진 등 관련 서류를 군종교구 총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군종교

노덕현 기자

#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소중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의 '현대불교'를 이룩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 현대불교신문 15th 참선대중화 선회 개산 1주년 대선회

## 단 2일만에 참선의 방향을 잡으세요.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한 나를 찾는 최상승 참선체험, 간화선의 길

참선(간화선)의 수행체계가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초보자부터 공부 진전이 없거나 제자리에서 맴도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개인 점검도 받지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시간만 흘러 보내는 사람 삶의 목표 없이 되는대로 사는 사람 세상에 휘둘러 사는 사람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는 사람과 기초에서부터 공부 힘을 얻을 수 있는 단계까지 공부 방향과 점검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일을 해야 할 일인지 안해야 할 일인지 모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통 모르면서 이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매우 당혹케 하는 일입니다. 인류가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런 상태에 처해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 의문을 풀지 못하면 어두컴컴한 밤중에 어디인지 모르고 내쳐져 있는 것과 같고 뒤 영커져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는 한 걸음은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밝음이 밝음이 아니요 어두움이 어두움이 아닙니다. 이는 밝음이 어두움이요 어두움이 밝고 어두웁습니다

### 일구법문을 듣는 것이 천만번 불공하는 공덕보다 뛰어나다

◎ 주요 내용 : 최상승선, 간화선의 길, 올바른 화두참구 방법 간택, 삶의 궁극적 목표와 참선 바른삶의 길, 올바른 신앙의 길, 화두 실천자의 자격

◎ 대 상 : 직장인 주부, 자녀 양육인, 교육자, 경영인, 고도의 정신과 역량이 필요로 하는 사람, 정되 명퇴자 인생을 바로 알고자하는 사람, 인생을 올바르게 정리하고자하는 사람, 대학생,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사람, 부부가족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람, 불교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분, 인생을 헛되지 않고 보람 있게 살고자하는 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어린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하는 사람, 올바른 불교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타성에 젖어 사는 현대인, 고도의 정신적 신체적인 활동을 요하는 분,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분, 학생, 주부, 경영인, 참선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 참선을 망설이고 있는 분, 초심자, 불교신앙을 갖고자 하는 분, 화두실참할 수 있는 최소 연령 : 중(24,14,5세)면 가능

◎ 일 과 : 법문 및 지도 점검, 정진

◎ 동참비 : 10만원(가족 1인 추가시 5만원)

법문 및 지도점검 : 대 효 스님 (활인선원장)

◆ 날 짜 : 입재 10월 24일(토) 오전 8시  
회향 25일(일) 오후 4시  
입방 23일(금) 오후 8시

◆ 접 수 : NAVER 카페 활인선원 활인.net

◆ 전 화 : ☎ 1644-5266 / 070-7519-9921  
찾아오는 길은 카페에 자세히

교 통 편 - 중부고속 일직(죽산) IC에서 용인방향10분 거리 (17번국도)  
영동고속(경부고속경유) 양지IC에서 진천,죽산방향 20분 거리 (17번국도)

대중교통 - 서울에서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죽산행 2, 30분마다 출발.  
죽산에서 시내버스10-1번 4번째정거장 '한명' 하차  
지방에서 경부선 상경시 / 평택안성IC 30분

\* 서울은 금요일 오후 6시30분에 조계사 앞에서 버스운행 (승차 희망시 사전연락 요망-정원초과 등)

삶의 방향을 찾으세요, 참선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 단 기 출 가 참 선 안 거

100일간 (2009. 11. 26 - 2010. 3. 5)

①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원 경기도 안성맞춤의 고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 대한불교조계종 제무원명선원 중앙연수원 행복제작소